

다이묘의 봉납품

덴진으로 신격화된 스가와라 미치자네는 서민에서부터 귀족들까지 모든 사회 계층이 폭넓게 신앙하는 존재였습니다. 귀족 계급은 미치자네를 높이 평가했는데, 다자이후 덴만구의 보물전에 바쳐진 봉납품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고관들이 덴진에게 물품을 봉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봉납된 물품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도 있는 반면, 전투나 여타 활동에서 무운을 빌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10 세기부터 19 세기 후반에 메이지 정부에 의해 중앙집권체제로 돌아오기까지, 일본은 각지의 다이묘(지방의 큰 세력을 지닌 봉건 무사들)들이 각자 드넓은 영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다이묘의 대다수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기원하고자 다자이후 덴만구를 찾았습니다.

다자이후 덴만구의 보물전에는 16 세기 유력한 다이묘 일족이었던 오다 가문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구의 뿔 모양은 물소를 상징합니다. 또한, 후쿠오카번의 초대 번주였던 구로다 나가마사(1568-1623)는 구로다 가문을 상징하는 등나무 문양이 새겨진 검을 봉납했습니다. 봉납된 보물 중에는 전쟁과 관련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4 세기부터 16 세기에 걸쳐 일본 본토의 서쪽 끝자락과 한때 규슈의 북부 지역 일부를 지배했던 다이묘인 오우치 가문은 매우 아름다운 칠기를 봉납했습니다.